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윤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캄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 제1독서 | 지혜 3,1-9

## 화답송 | 시편 126(125),1-2ㄱ,2ㄷ-3.4-5.6(◎ 5)



(후렴)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 제2독서 | 로마 8,31ㄴ-39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라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 복음 | 루카 9,23-26

**영성체송**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성가** | 입당 287      예물준비 206(220,218)  
영성체 169(167)      파견 285

##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 미사 봉헌

## 연미사 지향

- 김예경 안젤라 Helene, Johansson
- 이성례 벨라멧다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 생미사 지향

- 배성용 가브리엘 영육 간의 건강
- 장혜윤 크리스티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하여(생일)
- 고유찬,고강준,고강록,고청아,최선이 가족건강과 좋은 결실 맺기를
- 도곡성당 섯별Pr.1000회 축하와 단원들의 건강과 은총을 위해

## 오늘의 말씀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24)

| 날짜     | 해설  | 1독서 | 2독서 | 보편지향    | 성체 분배   | 복사                  |
|--------|-----|-----|-----|---------|---------|---------------------|
| 9월 20일 | 장혜윤 | 민완준 | 류유리 | 민완준 류유리 | 이영혜 유정옥 | 한서희 김민서 이예진 양지수 허우현 |
| 9월 27일 | 국민준 | 강호영 | 전푸름 | 강호영 전푸름 | 정다경 진서윤 | 김민서 허우현             |

| 미사, 성사, 교리 안내 |                          |
|---------------|--------------------------|
| 주일 미사         | 오전 09:15 대성전             |
| 청년 미사         |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아래성당   |
| 고해 성사         | 08:30-08:50 아래성당 고해소     |
| 혼인 성사         |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
| 유아 세례         |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
| 봉 성 체         |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마리루시  |
| 예비신자 교리       |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마리루시  |
| 견진 교리         |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마리루시 |

## 2026 한가위 합동위령 미사 & 식사 나눔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한가위(9/25)를 기념하여 오늘 합동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또한 미사 후 산 다미아노홀에서 공동체 한가위 식사나눔을 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명절의 기쁨을 다함께 나누셨음 합니다.

\* 본당 행사로 인해 **9월 27일**  
산 다미아노홀에서의 **친교 모임은 없습니다.**

##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 2027년 부활 세례/견진성사 예비자 교리

2027년 부활성야에 세례/견진 받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1)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예비신자)

2) 세례를 받은 사람 중 견진 희망자

(다른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분은 세례증명서 제출 필수)

모집기간: 2026년 10월 25일까지

교육기간: 2026년 9/13(주일)- 2027년 3/28(주일)

장소: 1:00PM-2:30PM, 프란시스룸(9/27: 3층 회의실)

신청 방식: 신청서 신청/제출(seoulosb@gmail.com)

신청/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 2027년부터 세례 받으시는 분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동시에 받습니다. 또한 2027년 이전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견진성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10월 로사리오 성월, 주일 미사전 묵주기도

10월 한 달 동안 8:50AM 부터 모든 교우가 함께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6년 청년성서 가을학기 첫모임

(주관: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대상: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신청자

첫모임: 9/27(주일) 12:00PM, 프란시스룸

문의: 714-809-9874. 카톡 sunwouk

(대표봉사자 유선옥 베로니카)

## 찬양기도회: '푸른 올리브'

"나는 하느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아라.

영영세세 나는 하느님의 자애에 의지하네."(시편 52,10)

함께 모여 노래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묵상하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9월 26일(토), 4:00-5:00PM, 아래성당

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 < KCB 가톨릭 방송 기금마련 걷기 대회 >

1. 걷기대회 일정: 2026년 10/4(주일), 오후 2시
2. 참가비: \$30.00 (티켓을 구입하시면 경품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 1등추첨: 메주고리에 성지순례권(이외에 풍성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장소: 뉴저지 레오니아 구 오버팩  
Henry Hoebel Pavilion  
(40 Fort Lee Road, Leonia, NJ 07605)
4. 문의: 718-888-9130  
(KCB 미주가톨릭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 "St. Francis's influence on INTERFAITH Relationship"

-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별 희년  
본당공동체 1일 피정 -

성 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희년을 맞아 아씨시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순례 피정을 마련합니다. 신앙으로 하나되어 함께 가는 영적 순례에 한인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10/17(토), 8시 출발(32번가 단체버스)-3시 귀가

장소: Graymoor Retreat Center Garrison, NY

신청비: \$75(버스비+간식+점심 포함)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또는 사무동 데스크

문의: Fr. Brian, tel 212-736-8500 ext. 232

[bjordan@stfrancisnyc.org](mailto:bjordan@stfrancisnyc.org)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구성열 바르바라  
(1776? -1816)



충청도 홍주의 한내장벌(현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출신인 구성열 바르바라는 성품이 온화하고 참을성이 있었다. 1801년 신유박해 이전에 입교한 그녀는 첫 남편을 잃고 서석봉 안드레아와 재혼하여 '서 과부'로 불렸다.

구 바르바라 부부는 사위 최봉한 프란치스코 부부와 함께 청송 노래산(현 경북 청송군 안덕

면 노래2리)의 교우촌에서 생활하였다. 1815년 주님 부활 대축일에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된 그녀는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한때 마음이 약해져 배교할 생각까지 품었지만, 사위 최 프란치스코의 권면을 듣고 다시 신앙을 굳게 다졌다. 이후 남편과 사위, 다른 교우들과 함께 대구로 압송된 그녀는 여러 차례 형벌을 받으며 17개월 넘게 옥중 생활을 견뎠다. 그동안 남편과 사위는 형벌 끝에 옥사했지만, 구 바르바라는 끝까지 신앙을 증언하였다. 사형 판결을 받은 그녀는 1816년 12월 19일 대구 형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당시 약 40세였다. 시신은 이듬해 3월 2일 친척과 교우들이 거두어 안장하였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200, 가해, 2026. 09.13

##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전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PETIQUE SALON

DOG GROOMING · DAYCARE · BOARDING  
Petiquesalon@gmail.com



강동호 베드로

917-419-7444

444 2nd Ave, New York, NY 10010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happyhomecare.rn@gmail.com

1:1 맞춤 방문 간호

(투약·검진·돌봄)



RESTORE STUDIOS

Dr. Iris M. Kim, PhD

▶ 레드라이트 테라피

▶ 컴프레션 마사지

▶ 라이프 코칭

(212) 796-7414 6 East 39th St, Suite 300  
New York, NY 10016  
info@restorestudiosny.com

## 다시 만난 신약 성경

##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다시 만난” 신약 성경이라는 제목이 오늘따라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해 말하는 코린토 1서 8장이 30년 전 제가 신학교 편입 시험을 치를 때 영어 시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코린토 1서에서 공동체의 일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오로 사도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말합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리낌없이 그 제물도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니 그를 위해서는 먹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실제로 경험해 본 일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만나고 보니 두 가지 사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사례는 무당집에서 수녀원에 과일을 선물로 보낸 일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과일이었지만, 그 과일은 사도직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는 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만 먹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어떤 행사에서 떡을 하는데, 신부님이 일부러 팔시루떡은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기 위해 떡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사실 그냥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다만 여러분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1코린 8,9)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바가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키면서 내 소신을 관철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오로 사도에게 공동체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했기에 자신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까지도 양보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일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합니다”(1코린 8,1). 로마서에서도 바오로 사도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나약한 이들의 약점을 그대로 받아 주어야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로마 15,1)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1장의 말씀들도 생각납니다. 하느님은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정말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나를 내세우게 되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게 되고,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분열됩니다. 그렇게 분열된 공동체에는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 자체이셨지만

그 진리를 강요하지 않으셨고, 죽임을 당하는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1코린 1,25).

서간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읽겠지만, 코린토 1서 10장에서도 바오로 사도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하느님의 교회에도 방해를 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1코린 10,32)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식을 갖고 있고 옳은 주장을 하는 것이 교회에 방해를 일으키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오늘날의 세상은 너무 똑똑합니다. 이 똑똑한 세상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어리석음입니다.

\* 출처: &lt;의정부주보&gt;, No.1198, 2026. 08월 30일



## &lt; 이탈리아 성지 순례 &gt;

주제: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서”

- \* 일시: 2026년 11월 2일 ~ 11월 (9박 10일)
- \* 순례지: 이탈리아  
(로마-리에티-아씨시-라베르나)
- \* 영적 지도: 이웅희 루카 신부님
- \* 신청 및 문의: 마리아투어 212-594-7773
- \* 신청시 준비: 여권 사본, 신청비 \$1,000,  
선착순 35명
- \* 비용: \$ 3,000 + 항공료 + 공동경비 € 100

## &lt; 사막에서 하느님과의 함께 피정 &gt;

- \* 일시: 2026년 11/16(월) ~ 11/21(토)
- \* 장소: Sacred Heart Retreat Center, Gallup, New Mexico
- \* 피정 지도: 이 소피아 수녀
- \* 협력사제: 김윤곤 아드리아노 신부님
- \* 피정비: 700불(수익금 일체는 원주민 사목에 쓰임)
- \* 문의: 이소피아 수녀.

Cell:718-690-6093, [sofiasfma@gmail.com](mailto:sofiasfma@gmail.com)

♠공항에서 피정의 집까지는 2시간 10분 거리입니다. 피정에 비행기로 오시는 분들은 가급적 시작하는 날 오후 2시까지 ABQ, NM 공항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시는 비행기는 마치는 날 1시 이후로 비행기 표를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